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봄이 온다’는 방북 예술단과 한반도의 봄

4월 1일(일) 저녁,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북 예술단 평양 공연이 2시간 10분 동안 열렸다. 소녀시대 출신 서현의 시화로 열린 이날 공연에 참가한 우리 가수는 조용필, 이신희, 최진희, 서현, 윤도현, 정인, 강산에, 백지영, 알리, 레드벨벳 등 대표급 가수들이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의 소원’을 11팀 25명 출연한 가수 전원이 무대에 나와서 불렀다. 2008년 10월 평양 ‘류경(柳京)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공연’과 2005년 8월 18일 조용필의 류경정주영체육관 공연 이후 13년만의 평양 공연이다.

3일 열리는 남북 합동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일정을 조정해서 부인 이설주와 함께 함께 남측 예술단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다. 이날 공연에는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창선 노동당 서기실장, 박춘남 문화상 등 평창동계올림픽에 방문했던 북측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소식을 전하며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

이 박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나란히 있어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출연한 가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문화 예술의 힘은 위대하다. 정치나 이념, 군사나 종교 등은 소통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문화와 예술은 정치와 이념, 군사나 종교 등을 뛰어넘어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나 이념, 군사나 종교 등은 만나는 자체부터가 쉽지 않다.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 만나도 자칫 갈등을 키우거나 싸우기 쉽다.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등의 활발한 교류 협력만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나는 수없이 주장해 왔다. 말하고 글로 쓰고, 연구하고 활동해 왔다. 통일정책으로 행정학박사 학위 논문을 썼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민주평통 의장) 표창을 받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회원단체로 활동하면서 통일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대북지원 시민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으로 대북 인도적(人道的) 지원물자 인도(捐贈)장장으로 2004년 남포항과 평양을 방문하여 대동강, 모란봉 올빛대, 평양인민대학습당, 만경대, 동명성왕릉, 주체사상탑 등 평양 유적지를 탐방했다. 평양 지하철을 타고 평양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을 참가시켜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 1월 초순까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에 서로 핵폭탄 단추를 책상 위에 갖고 있다고 위협과 긴장 조성을 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 속을 헤매고 있었다. 남북 관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급속히 해빙(解氷)되고 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한반도에 봄은 오고 있다. 4월 27일, 관문집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더 남아야 할 많은 산이 있고 비탈기가 있었지만, 단절과 대결의 당사자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변화요, 혁명적인 사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봄은 오고 있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만만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나는 우려곡절은 있지만 남북관계도 잘 풀려 나가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것을 믿는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0%가 넘어서가 아니고,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미흡했던 점을 잘 살피고 보완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반변교사(反叛敎師)로 삼아서 국정 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입기 말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기 때문에 후속 실행 조치들을 하는 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임기를 시작하여 1년도 안되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면, 앞으로 4년이나 남은 임기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특정한 상호 신뢰 속에 빠른 진척과 평화 통일의 길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은 분단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 겨레에게 하늘이 준 거룩한 기회요, 눈물겨운 축복이다. 하늘이 내려준 이 기회와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 남북 북핵 8천만 온 겨레가 기도하고 열원하고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說

‘불면증’ 방치해선 안 된다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5년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인 100명 중 1명은 불면증을 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불면증(질병코드 F510, G470)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2년 40만3천417명에서 2016년 54만1천958명으로 34.3%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2012년 15만2천603명에서 2016년 20만9천530명으로 37.3%, 여성은 2012년 25만814명에서 2016년 33만2천428명으로 32.5% 증가했다. 실제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높았다.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약 6명꼴인 59.2%(32만1869명)는 50~70대였다. 50대 11만4천777명(21.2%), 60대 10만7천585명(19.9%), 70대 9만8천507명(18.2%)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성별과 연령대를 모두 고려하면 남자는 70대가 4만4천114명(21.1%), 여자는 50대가 7만5천47명(22.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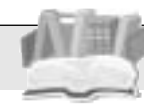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4명꼴로 불면증이 2016년 한해 불면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특히 고연령으로 갈수록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많았다. 8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4명꼴로 불면증을 앓았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늘어날뿐더러 소화기와 호흡기, 근골격계 등 신체적 질환에 따른 불면증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불면증은 추위집수족 환자 수가 증가하고 더워지면 다시 감소하는 계절적 차이도 보였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물을 주의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罔談彼短

罔談彼短

▶ 뜻: 자기(自己)의 단점(短點)을 말하지 않는 동시에 남의 잘못을 욕하지 말아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계절성 우울증 예방하자

햇볕이 따사롭고 포근해지는 봄이다. 봄은 새로운 시작, 희망 등이 떠오르지만 아이러니하게 봄에 사람들의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이를 계

절성 우울증이라고 한다. 일조량이나 온도의 변화가 몸속 호르몬과 뇌 속 시상하부의 일시적인 이상을 일으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경 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양이 적게 분비되는 계

울에 비해 봄이 되면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부족하게 느낀다.

이런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이 부족한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데 봄에는 희망적인 주변 분위기와 상반된 자신의 상태가 대중 속 소외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심해진다.

이러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매일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생활에서 단박질을 섭취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면 좋다.

항상 건강하고 밝게 생활해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자.

이희창 / 화순소방서 안전센터 소방교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Large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